

국민이 ATM이냐... '총선용 선심' 6.7조 추경

한국당 "선심성 예산만 134조원 넘어
 재난대책에 SOC예산 끼워넣지 말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자 '세금 퍼줄리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산불·지진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즉각 "총선용 추경을 멈추라"며 강력반발했다. 특히 재해·비재해 추경을 분리해 편성하라는 한국당의 요구를 민주당과 정부가 거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국가가 갭을 비워서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야 한다"며 "야당도 세계경제 하방 등 민생경제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데, 재난 추경과 경제대응 추경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생 돌보기에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강원 산불 사고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5곳에 희망근로 형태로 2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림복구와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 산불특수진화대 등 인력확충 방안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포항지진 피해 지원대책으로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지원하는 한

편 △지역별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포함지역에 특별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고용·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4·3보궐선거 당시 통영·고성지역 유세에서 공약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돌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총사업비 134조원 규모의 410개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건의받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은 또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해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다만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홍영표 원내대표가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SOC 예산이 총선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총선용 추경"이라며 "국민 호주머니를 ATM기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접



“영면하소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발인식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 사옥에서 대한항공 지원자들이 도열해 있는 가운데 고인을 실은 운구차가 들어오고 있다. 비공개 영결식을 마친 고인의 유해는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노제를 거친 뒤 장지인 경기 용인시 하갈동 신갈 선영에 안장됐다. 사진=시장경제DB

견한 자리에서도 "총선용·선심용, 그리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할 수 없다"며 "그래서 오히려 재해부분이 급박하다면 재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안을 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대책이 갖는 시급성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한 선제대응과 재정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언론

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니 선심성 예산이 무려 134조원이라고 한다"며 "오늘 아침에 추경당정협의회를 했는데 총액을 정해놓고 '대표' 항목 끼워 넣기에 바쁘다고 한다. 총선용 추경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석 128석에 불과한 여당으로서 국회 추경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집권 이후 매년 정책실패를 뿔뿔하는 추경을 공식화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청와대의 포퓰리즘이자 '세금 퍼줄리즘'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에 절대 맞지 않다. 불과 한 달 전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고 3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그런데 경기부양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자기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무 기자 sewoen@meconomynews.com
 ▶ 관련기사 2, 3편

美 눈 밖에 났나... 한국, '이란 석유' 수입 금지 당해

미 '이란 제재 유예' 종료... 8개국 수입 불허
 국내 석유화학업계 수익성 악화 '초비상'

미국정부가 오는 5월3일부터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는 3% 급등했다. 정부는 우리 석유화학업계가 2018년부터 대비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업계에서는 단기적 충격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원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한국 업체들이 이란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70%가 콘덴세이트다. 이는 국내에서 소비하는 콘덴세이트 양의 54%에 이른다. 2018년 이란 석유가격이 두바이유에 비해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란 측면 때문에 국내업체들은 이란 석유를 선호한다. 콘덴세이트는 유정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함께 나오는 부산물이다. 콘덴세이트는 셰일오일 등과 달리 황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는데 이는

나프타 함유량과 직결된다. 미국이나 중동, 북해에서 생산하는 석유를 정제하면 원유량의 20~30% 가량의 나프타를 생산할 수 있는 반면 이란 석유는 최대 80%까지 생산할 수 있어 수익성이 매우 높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수익성은 장기적으로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지난해 11월 예외를 인정받았던 한국·중국·일본·인도·이탈리아·그리스·터키·대만은 5월3일부터 이란산 석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탈리아·대만 등은 이란산 석유를 대체할 공

급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란제재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협박 등 미국과 이란의 강경대립, 이란 석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으려는 중국, 여기에 편승하려는 인도, 5선에 성공한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이란제재 적극 지지 등 최근 상황은 이란제재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때문에 다른 한 쪽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끝나야만 제재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현재 국내에서 이란 콘덴세이트를 적잖게 수입하는 업체로는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한화토탈 등이 지목된다. 이들 업체는 원료가격이 배럴당 1~2달러만 움직여도 연간 수백억원의 이익이 출렁거리는 상황이라서 이란 석유 대신 카타르 등에서 콘덴세이트를 수입할 경우 원가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들 석유화학업체들에 석유 대신 가공된 나프타를 바로 수입하거나, 다른 종류의 콘덴세이트인 미국산 셰일오일을 수입해 이를 가공하는 게 어떻겠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업체들로서는 어느 쪽으로든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선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경우 기자 enoch@meconomynews.com

5월 휘발유
 급등할 듯

유류세 인하폭 축소
 15%→7% 절반 수준

내달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축소를 앞두고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 급등이 예고되고 있다. 동시에 국제유가 상승 기류에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까지 겹쳐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 인상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축소다. 정부는 지난 12일 유류세 인하 정책을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인하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했다. 애당초 유류세 인하안이 5월 6일부로 일몰되는 것보다 완화된 조치이나 내달 7일부로 휘발유(L당 65원)·경유(L당 46원)·LPG 부탄(L당 16원)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기름값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관계없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2주차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으로 전주보다 L당 10.3원 오른 1408.3원이었다. 지난 2월 3주차(1342.9원)와 비교했을 때 휘발유 가격이 채 두 달도 안된 시점에서 65원이나 올랐다.

기름값 상승요인은 대외적으로 넓게 퍼져 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2~3주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시장도 뚜렷한 오름세를 보였다. 오피넷에 따르면 일일 기준 지난해 12월 배럴당 50달러 아래(49.52달러)로 떨어졌던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 들어 70달러까지 올라섰다. 여기에 미국의 대(對)이란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잠재적 유가 상승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앞서 OPEC은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산유량 120만 배럴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올 하반기 감산에 대한 논의는 6월 말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요 산유국으로 꼽히는 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각각 지정학적 리스크로 정상적인 원유 생산이 어려워진 점도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경우 기자
 orange@meconomynews.com

Inside
 총선 선심용 추경 남발 ▶2~3편
 공시가 인상 ▶4편



canneslions.co.kr

Interaction
 Storytelling
 Copywriting
 Humour
 Personal Behaviour
 Emotional AI
 Data Storytelling
 Transparency
 Redefine
 Personalisation
 Technology Scale
 Blockchain
 Experimentation
 Transformation

제 66회 칸 라이언즈 크리에이티비티 페스티벌
 66TH INTERNATIONAL FESTIVAL OF CREATIVITY
CANNES LIONS
 17 - 21 JUNE 2019

**2019 칸 라이언즈
 한국참관단 모집**

일정 6월 15일~23일(7박9일, 칸)
 문의 칸 라이언즈 한국 사무국
 webmaster@canneslions.co.kr
 A&F Korea (02-757-1830)

▶ 참가 일정은 조가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선착순 접수합니다. 개별일정 가능하여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